

내고장 일꾼



김병내 남구청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현대어린이집서 열리는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실'에 참석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17일 오후 8시 15분 남광주시장에서 열리는 남광주야시장 재개장식에 참석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17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현열 및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행사'에 참석한다.

'독서 플래시몹'·'나눔장터' 모집 유안근린공원에서 남구민 북페스티벌

광주 남구는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제5회 남구민 북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공연 행사 중 하나인 '독서 플래시몹 경연대회'와 주민 참여형 행사인 '나눔장터'에 함께 할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제5회 남구민 북페스티벌은 오는 9월 15일 봉선동 유안 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구는 책을 매개로 주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 체험형 축제 만들기 위해 기존에 진행돼 왔던 부스 운영 중심의 축제에서 탈피, 공연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가 바로 독서 플래시몹 경연대회이다.

책의 내용과 주제 등을 음악과 댄스, 연극, 카드섹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책과 더욱 더 친밀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팀 모집은 13일부터 선착순이며, 총 12개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팀별 인원은 3~20명 이내다.

가족과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단체 등 참여 범위에 제한은 없다.

최우수팀과 우수팀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시상금이, 나머지 10개 참가팀에는 5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책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과 신발, 장난감 등을 주고 받는 나눔장터도 운영된다. /김충찬 기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접수...10월에 새기준에 따라 지급 부양 의사없는 자녀때문 급여 못받던 대상자 지원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낡은 집도 고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광주 남구는 다음달 28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예전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 3,000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자산조사 및 주택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과 9월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는 10월분 급여(4인 기준 23만 1,000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모씨(43·여)는 “그동안 주변에서 고령으로 폐지를 줌과 다니며 한 여생을 힘겹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전할 때가 많았다”며 “남구가 앞장서서 이러한 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구축해줬을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동안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 노인장애인복지과(607-3442),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찬 기자

엄마·아기 함께하는 '오감발달 놀이'

'우리아기 EQ, IQ 쑥쑥' 참가자 선착순 모집

광주 남는 부모와 생후 18~26개월 사이의 아이가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 놀이 교육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오감 발달놀이인 '우리아기 EQ, IQ 쑥쑥'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우리아기 EQ, IQ 쑥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8~26개월 사이 영유아 및 부모 30명이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부모는 남구청 5층 보건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화(607-4332)로도 신청 가능하다.

'우리아기 EQ, IQ 쑥쑥'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감발달협회 천미선 전문강사가 도맡아 진행하며, 천미선 강사는 언어 리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능력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언어간 리듬 차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언어리듬 교육을 선보인다.

또 점토 놀이와 거미줄 만들기, 아기 돌보기, 모형 야채로 된장찌개 끓이기 등 오감발달 놀이도 소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아기 EQ, IQ 쑥쑥'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돕는 언어 및 음악, 미술, 신체 등 통합놀이 교육을 통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충찬 기자

'지역사회 건강조사' 10월까지 실시

19세이상 450가구 방문

광주 남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주택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표본가구 450세대(900명)가 조사 대상이다.

남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각 가정에 사전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문항은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당뇨병 및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 상태, 교육 및 경제활동 등의 설문 조사와 조사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 혈압 측정 등 계측조사로 구성돼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상품권이 제공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충찬 기자



광주 남구 관내 구립 도서관인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의 열람실 개관 시간이 오는 9월부터 2시간 연장 운영된다.

'구립 도서관 열람실' 야간 개방

푸른길·청소년도서관 연장 운영

광주 남구 관내 구립 도서관인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의 열람실 개관 시간이 오는 9월부터 2시간 연장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주월동 푸른길도서관과 봉선동 청소년도서관의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하지 않은 고교생 및 중학생의 경우 하교 후 도서관 열람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곳의 도서관 열람실 연장 운영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충찬 기자

또 도서관 개방 연장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퇴직 교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은 각 도서관 별로 2명이며, 근무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3시간이다.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20세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평일 야간 봉사활동이 꾸준히 가능한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구립 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야간 운영을 요구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충찬 기자

(재)남구장학회 장학생 모집

31일까지...총 4천만원 지급

광주 남구는 제20회 남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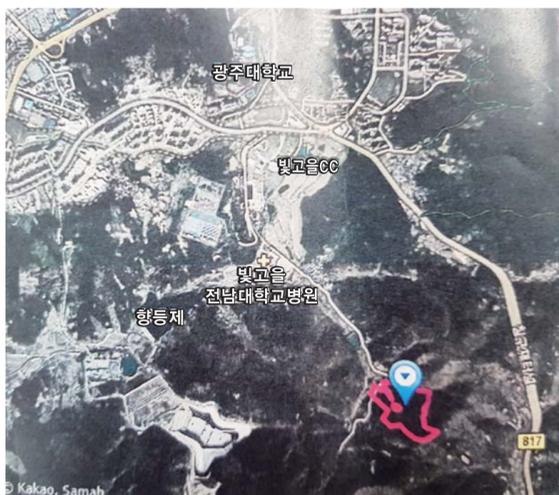
남구에 따르면 제20회 남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0명과 대학생 30명 등 총 50명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신청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총 4,000만원의 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주민과 자녀들로, 고등학생의 경우 올해 1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분 이내, 대학생은 평균 2.75 이상(4.3만점 기준 평균 2.5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충찬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